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2020. 6.

국립국어원 2020. 6.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2020. 6.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개통

실전 띄어쓰기(1)
하나의 우리, 각자의 우리 ‘우리’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용언의 종류(1)

표준어 바깥의 세상
꼭돈과 급행료

말뭉치로 바라보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휘 사용과 유행의 변화(1)

우리말 다듬기(1)
지금은 비대면 시대!

실전 띄어쓰기(2)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밖에’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용언의 종류(2)

국어정책 통계
하나로 가는 길
남북의 언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말 다듬기(2)
새천년 시대

우리말, 그리고 사람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어른들을 위한 동시집을 출간한 풀꽃 시인 나태주

목차

심표, 마침표. | 2020. 6.

국어 배우기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용언의 종류(1)
6		용언의 종류(2)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꼭돈과 급행료
14	실전 띄어쓰기	하나의 우리, 각자의 우리 ‘우리’ 띄어쓰기
16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밖에’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18	국어원 소식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개통
20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22	국어정책 통계	하나로 가는 길 남북의 언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6	우리말 다듬기	지금은 비대면 시대
28		새천년 세대

국어로 바라보기

30	말뭉치로 바라보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휘 사용과 유행의 변화 (1)
36	우리말 그리고 사람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우리말 풀기

42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	--------	----------



용언의 활용(1)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어떤 어형을 만드는 것, 곧 어미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와 관련한 문법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학교 문법적으로 말하면 서술격 조사 ‘이다’ 역시 활용을 하므로 용언만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이다’도 대개 형용사의 일종으로 다루어지므로, 활용은 용언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1) 먹다, 먹고, 먹지, 먹어서, 먹으면...

(1)에서는 ‘먹-’에 어미 ‘-고, -지, -어서, -으면’이 붙어서 단어의 형태가 완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어의 형태를 가리켜 ‘어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처럼 어간에 어미가 붙어 이루어진 어형을 활용형이라고 한다. 용언은 활용형이 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살려 쓴다는 뜻의 활용이라는 말을 쓴다.

활용은 크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거나 달라지더라도 일반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규칙 활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가다, 가고(가--고), 가서(가--아서)

(3) 쓰다, 쓰고(쓰--고), 써서(쓰--어서)

(4) 살다, 살고(살--고), 사는(살--는)

국어에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모음이 연속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기피 방법 중 하나는 두 모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것이다. (2)와 (3)에서 어간의 끝 모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붙으면 어간과 어미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결합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어서’가 붙을 때에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지점의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탈락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규칙 활용으로 본다. (4)에서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 앞에서 ‘ㄹ’이 탈락했는데, 어간의 종성 ‘ㄹ’이 어미의 초성인 ‘ㄴ, ㄷ, ㅂ, ㅅ, ㅇ’를 만날 때 탈락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 현상이므로 이 역시 규칙 활용이다.

(2)에서 동일 모음이 연속되어 하나를 탈락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워 불규칙 활용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3)에서의 ‘으’ 탈락, (4)에서의 ‘ㄹ’ 탈락은 직관적으로 불규칙 활용과 유사하게 보여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어 온 전통이 있고, 그러한 전통을 존중하여 현행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도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3), (4) 역시 규칙 활용이다.

(5) (돈을) 걷다, 걷고, 걷지, 걷어, 걷으면...

(6) (길을) 걷다, 걷고, 걷지, 걸어, 걸으면...

(5)의 ‘(돈을) 건다’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규칙 동사이다. 그러나 (6)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으면’ 앞에서 ‘건-’의 ‘ㄷ’이 ‘ㄹ’로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동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6)의 ‘(길을) 건다’를 불규칙 동사로 다룬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이 ‘ㄹ’로 변하는 불규칙을 ‘ㄷ 불규칙’이라고 한다.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예로 ‘묻다[問], 듣다[聞], 싣다[載], 깨닫다[覺]’ 등을 더 들 수 있다. ‘ㄷ 불규칙’ 활용은 동사에서만 발견되고, 형용사에서는 발견된 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6)에서 이형태 ‘건-’과 ‘걸-’ 중 ‘건-’을 대표형으로 본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둘 이상의 이형태로 나타날 때 그중 대표로 삼은 하나를 기본형이라고 한다. 보통 학문적으로는 ‘건-’을 기본형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어간만으로는 어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어간+다’의 형식을 기본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국어사전의 표제어도 이것이 기본형으로 올라 있다.

용언의 활용, 다시 정리해 볼까요?

- **기본형:** 하나의 형태소가 둘 이상의 이형태로 나타날 때 그중 대표로 삼은 하나
- **어미 활용:**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어떤 어형을 만드는 것
- **규칙 활용:** 우리말의 일반적인 발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활용
- **불규칙 활용:** 우리말의 일반적인 발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활용

용언의 활용(2)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내용을 이어받아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1) (허리가) 굽다, 굽고, 굽으면, 굽어...

(2) (불에) 굽다, 굽고, 구우면, 구워...

(1)의 ‘(허리가) 굽다’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규칙 동사이다. 그러나 (2)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면, -어’ 앞에서 ‘굽-’의 ‘ㅂ’이 ‘우’로 바뀐다. ‘-으면’의 모음 ‘으’가 다른 모음 ‘우’를 만나 탈락한 것이 ‘우’이고 ‘우’와 ‘어’가 합쳐진 것이 ‘워’이므로 ‘구우면, 구워’로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이 이렇게 변동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6)의 ‘(불에) 굽다’를 불규칙 동사로 다룬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ㅂ’이 ‘우’로 변하는 불규칙을 ‘ㅂ 불규칙’이라고 한다.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예로 ‘덥다, 춥다, 무겁다, 가볍다’ 등을 더 들 수 있다.

(3) (머리를) 빗다, 빗고, 빗지, 빗으면, 빗어...

(4) (선을) 굿다, 굿고, 굿지, 그으면, 그어...

(3)은 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4)에서는 ‘-으면, -어’ 앞에서 ‘굿-’의 ‘ㅅ’이 탈락한다. 우리는 어떤 말이 이렇게 변동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4)의 ‘굿다’를 불규칙 동사로 다룬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을 ‘ㅅ 불규칙’이라고 한다.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예로 ‘짓다, 잇다, 져다, 낫다, 붓다’ 등을 더 들 수 있다.

(5) (물을) 따르다, 따르고, 따라, 따랐다...

(6) (시간이) 이르다, 이르고, 일러, 일렀다...

(5)는 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6)에서는 ‘-어, -었-’ 앞에서 ‘이르-’의 ‘으’가 ‘르’로 바뀌어, 즉 ‘르’가 ‘르르’로 바뀌어 결국 ‘일러, 일렀다’가 되었다. 이처럼 어미의 모음 ‘아/어’ 앞에서 ‘르’가 ‘르르’로 바뀌는 불규칙을 ‘르 불규칙’이라고 한다.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예로 ‘흐르다, 고르다, 빠르다, 바르다, 게으르다’ 등을 더 들 수 있다.

(7) (목적지에) 이르다, 이르고, 이르러, 이르렀다...

(7)의 ‘이르다’는 (6)의 ‘이르다’와는 다른 활용을 한다. (7)에서의 ‘이르러’는 ‘이르+어’에서 ‘어’가 ‘러’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어미의 모음 ‘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을 ‘러 불규칙’이라고 한다. ‘러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예로 ‘우러르다, 푸르다’ 등을 더 들 수 있다. 앞에서 계속 봐 왔던 ‘ㄷ 불규칙, ㅂ 불규칙, ㅅ 불규칙, 르 불규칙’은 모두 어간에서 변동이 일어난 것이지만, 이 ‘러 불규칙’은 어미에서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8)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여/공부해, 공부하였다/공부했다...

(8)에서의 ‘공부하여’는 ‘공부하+어’에서 ‘어’가 ‘여’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어미의 모음 ‘어’가 ‘여’로 바뀌는 불규칙을 ‘여 불규칙’이라고 한다. ‘여 불규칙’ 역시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그런데 ‘공부하여’는 흔히 ‘공부해’로 줄여 말하는데, 이 활용은 ‘공부하+어’의 ‘아어’가 ‘애’로 바뀐 것이다. 이를 ‘애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 활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부하다, 절하다, 건강하다’와 같이 ‘-하다’로 끝나는 용언은 ‘여 불규칙’ 활용도 하고 ‘애 불규칙’ 활용도 하는 말이다.

(9) 파랗다, 파랗고, 파래, 파랬다...

(10) 누렇다, 누렇고, 누레, 누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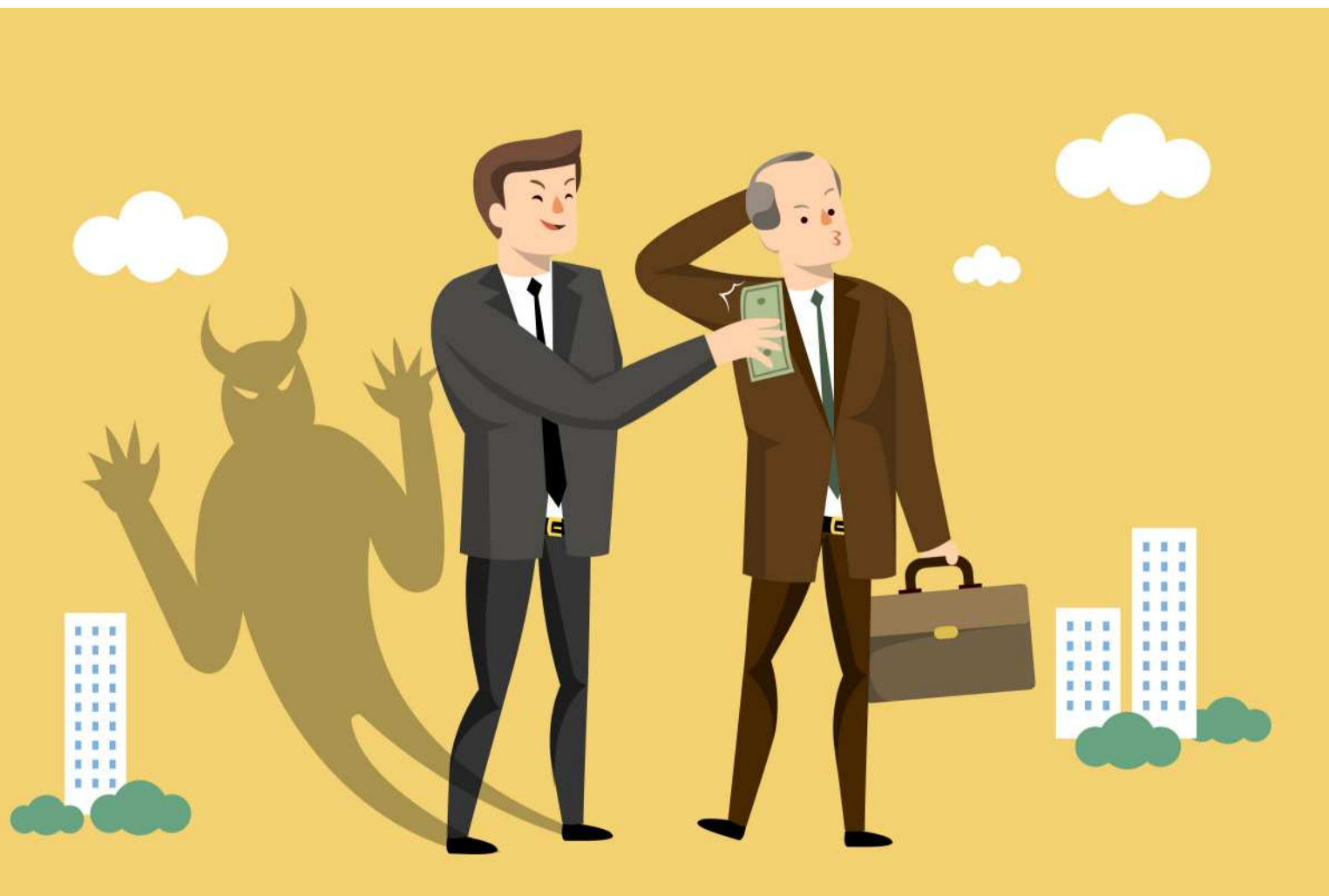
‘애 불규칙’ 활용만이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은 아니다. (9)에서 ‘파랗+아’는 ‘파라’가 아니라 ‘파래’이고 (10)에서 ‘누렇+어’는 ‘누러’가 아니라 ‘누레’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어간 ‘파랗-, 누렇-’에서 ‘ㅎ’도 탈락되었고 어미의 ‘아/어’도 ‘애/에’로 바뀌었다.

이처럼 어미의 모음 ‘아/어’ 앞에서 ‘ㅎ’이 탈락하고 ‘아/어’는 ‘애/에’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ㅎ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ㅎ 불규칙’ 활용도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불규칙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다양한 불규칙 활용이 존재하지만, 그 모두를 살피기는 어려우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불규칙 활용의 예, 다시 정리해 볼까요?

- **‘ㅂ 불규칙’ 활용:**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ㅂ’이 ‘우’로 변하는 불규칙 활용
예 **굽다:** 구우면, 구워
- **‘ㅅ 불규칙’ 활용:**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
예 **긋다:** 그으면, 그어
- **‘르 불규칙’ 활용:** 어미의 모음 ‘아/어’ 앞에서 ‘르’가 ‘ㄹ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
예 **이르다:** 일러, 일렀다
- **‘러 불규칙’ 활용:** 어미의 모음 ‘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
예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 **‘여 불규칙’ 활용:** 어미의 모음 ‘어’가 ‘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
예 **공부하다:** 공부하여, 공부하였다
- **‘ㅎ 불규칙’ 활용:** 어미의 모음 ‘아/어’ 앞에서 ‘ㅎ’이 탈락하고 ‘아/어’는 ‘애/에’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
예 **파랗다:** 파래, 파랬다

꼭돈과 금행료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경찰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파출소에 배치된 병운은 첫날부터 소장에게 굽신거리고 발라맞추고 **{꼭돈을}** 찢러주어 환심을 샀다. 《김우경(2003): 눈물 흘린 표충비》 (북한)
- 조기운이 다시 나서서 사정하고 원도가 뒤로 가만히 **{꼭돈을}** 찢러주어서야 청년들이 풀려났다. 《최국철(2001): 간도전설》 (중국)

1)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



꼭돈! 아주 생소한 말이지만 뜻을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다. 북한과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만 쓰이는 이 말은 ‘대가를 바라고 남에게 꼭 찢러주는 돈’이다. 한마디로 ‘뇌물’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뇌물은 현물도 가능하지만 ‘꼭돈’은 현금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나 할까?

‘꼭돈’은 ‘아무지게 찢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흥내말 ‘꼭’과 ‘돈’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위의 용례에서 보듯 ‘꼭돈’은 주로 ‘찢러주다’와 함께 쓰이며, 아래 용례에서처럼 ‘찢러먹이다’나 ‘먹이다’, ‘주다’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 알고보니 백부가 경찰기관의 “유력자”에게 꼭돈을 **{찢러먹이고}** 빼낸 것이었다. 《차승철(1999): 양춘을 불러》
- 당시 《림정》의 법무부장을 지내던 최봉환은 경찰에 잡혀간 그를 **{꼭돈을}** 먹이고 떼내다가 오래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교양을 하였으며 또 그후에는 학비를 대주며 공부까지 시켰다. 《김원중(2000): 인생의 흐름》 (북한)
- 놈은 **{꼭돈}** 얼마를 더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정성훈(1990): 메아리》 (북한)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북한에 ‘꼭돈’이 있다면 남한에는 ‘급행료’가 있다. ‘본래 ‘급행열차에 부가하는 일반 요금 외의 부가 요금’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른바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서 ‘급행료’는 아주 빈번하게 쓰이던 말이었다.

- 정말 치사한 뇌물이구나 싶어 싱겁기도 했으나 소위 {급행료란} 것의 효과도 무시 못한 터라 별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문구(1976): 장한몽》 (남한)
-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급행료} 조의 돈을 줘야 했던 나라, 몇 년 전까지 변변한 수출품 하나 없다가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을 팔았던 나라에서 온 나였다. 《황병기(2009): 오동 천년, 탄금 60년》 (남한)

남한에서 ‘급행료’와 ‘급행요금’은 동의어인데,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그들의 표기법에 맞춰 ‘급행료금’으로 실려 있고 “급행열차를 타는 손님들에게서 일반요금밖에 더 받는 돈”으로만 풀이가 되어 있어 남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북한에서는 ‘급행료금’이 뇌물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급행-요금(急行料金) [명사]

- ① 급행열차에 부가하는 일반 요금 외의 부가 요금. ≒급행료1.
- ②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 ≒급행료2.

조선말대사전

급행-료금(急行料金) [명사]

급행열차를 타는 손님들에게서 일반요금밖에 더 받는 돈.



부정한 청탁은 곧 반칙이다. 반칙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다.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내 형제가 될 수도, 내 동료가 될 수도 있다. ‘꼭돈’이든 ‘급행료’든 통일된 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진 말이 되길 바라 본다.

하나의 우리, 각자의 우리 '우리'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우리 의 숨은 영웅들 고마워요!

앞으로도 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우리' 띄어쓰기는 '우리말'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들만 기억해 두면 쉬워요!

더 많은 우리가 우리를 지켜 내야 합니다!

'우리' 띄어쓰기

이럴 때 띄어요!

- 우리 학교
- 우리 집
- 우리 동네
- 우리 엄마
- 우리 역사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우리' 띄어쓰기

이럴 때 붙여요! (합성어일 때)

- 우리나라
- 우리말
- 우리글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의 말을 이르는 '우리말', 한글을 이르는 '우리글'만 한 단어로 보아 붙여 써요.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해요! •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만나요!

-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가리킬 때는 붙여 써요.
-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를 가리킬 때는 띄어 써요.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우리 가족,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요!

더불어 우리말과 우리글도 함께 지켜 나가요!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하나의 우리, 각자의 우리

우리 띄어쓰기

한국 사람들의 시만 의식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될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대단해요.

14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2020. 6. 15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밖에'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밖에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집밖에에서 맘껏 뛰놀지 못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실전 띄어쓰기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뜻밖에 찾아온 작은 경험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해요.

실전 띄어쓰기



'밖'의 띄어쓰기는 의미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조사 '밖에'는 앞말과 붙여 쓰고,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는 띄어 씁니다.

'밖에' 띄어쓰기

이럴 때 띄어요!

- 집 밖에 누가 왔나 보거라.
- 누구 밖에 있어?
- 능력 밖의 일이야.

'바깥'을 뜻하는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는 앞말과 띄어 써요.

이럴 때 붙여요!

- 조금밖에 없어요.
- 저는 이 길밖에 몰라요.
- 어태 그것밖에 못 했니?
- 그럴 수밖에 없다.

조사 '밖에'는 앞말과 붙여 써요.
'오직 그것만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없다', '모르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 뜻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림

'밖에' 이렇게 구별해요

-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 마스크를 쓸 수 밖에 있다.

'없다'를 '있다'로 바꾸어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사 '밖에'이므로 앞말에 붙여요.

• 뜻밖에 / 창밖에 / 문밖에

명사 '밖'이 합성어의 일부로 굳어진 경우도 있으니, 외워 두면 편하겠죠?

• 엄마가 하라니 그렇게 할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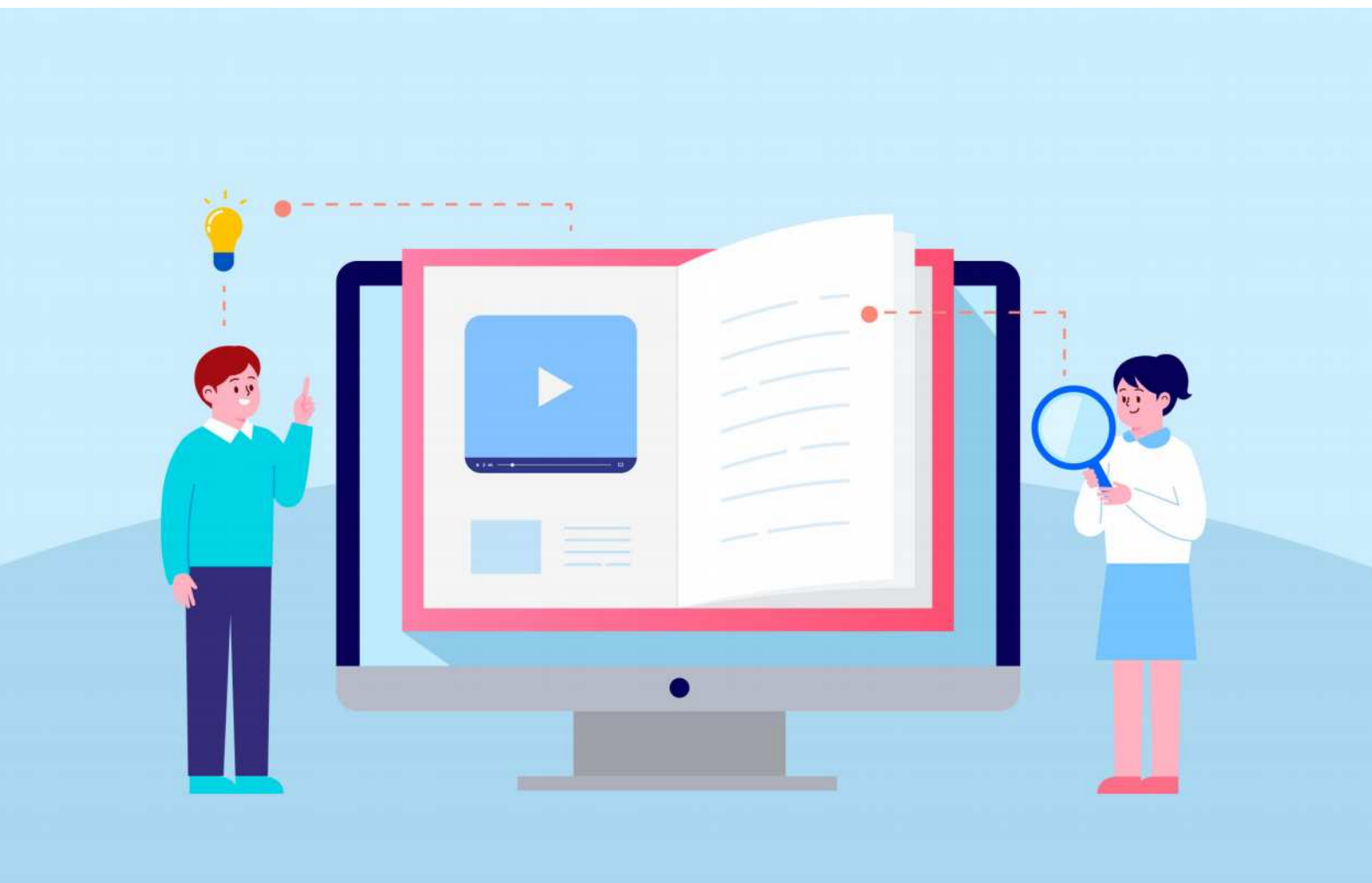
'-르밖에 / -을밖에'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요.

실전 띄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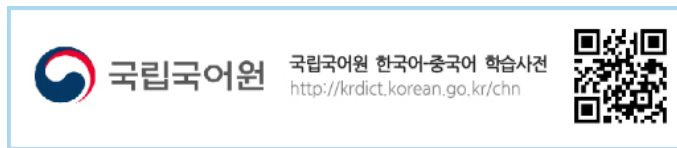


이 밖에도
알기 쉬운 우리말 생활도 꼭 실천해 보세요!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개통



국립국어원은 지난달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이하 《한-중 학습사전》)을 개통하였다. 이번 《한-중 학습사전》이 개통되면서 총 11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의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 완성되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정보 무늬

《한-중 학습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여 어휘가 실린 《한국어기초사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한-중 학습사전》은 다양한 어휘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역시 한국어와 중국어로 살펴볼 수 있다. 초·중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는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국어 뜻풀이가 함께 제공되는 이중 언어화 사전이 한국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 이중 언어화 사전: ‘한국어 단어(올림말)-한국어 뜻풀이-번역 뜻풀이’를 제공하는 사전으로 기존의 단일어 사전이나 이중 언어 사전(한국어 단어-한국어 단어를 번역한 대응어)의 장점을 모두 갖는 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에서 ‘잠옷’으로 검색한 결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에서 ‘睡衣’으로 검색한 결과

《한-중 학습사전》이 중국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한국어 공부의 문턱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중 학습사전》은 시범 운영 중이며, 컴퓨터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2일(금),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10. 26.~28.)는 전 세계의 한국어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학술대회와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체부·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조직위·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 (1분과) 세계한국어학자대회, ▲ (2분과) 한국어교육자대회, ▲ (3분과) 한국어언어문화산업대회(전시·체험 포함) 등 분과별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 (국내 참석자) 집담회 등 오프라인 회의 / (국외 참석자) 온라인 영상 회의



조직위 첫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장소원 국어학회장, 각 분과위원장*, 주최·주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그동안 분과별로 대회를 준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분과 이찬규 중앙대 교수, 2분과 한재영 한신대 교수, 3분과 김경선 서울대 교수

**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심동섭 국립한글박물관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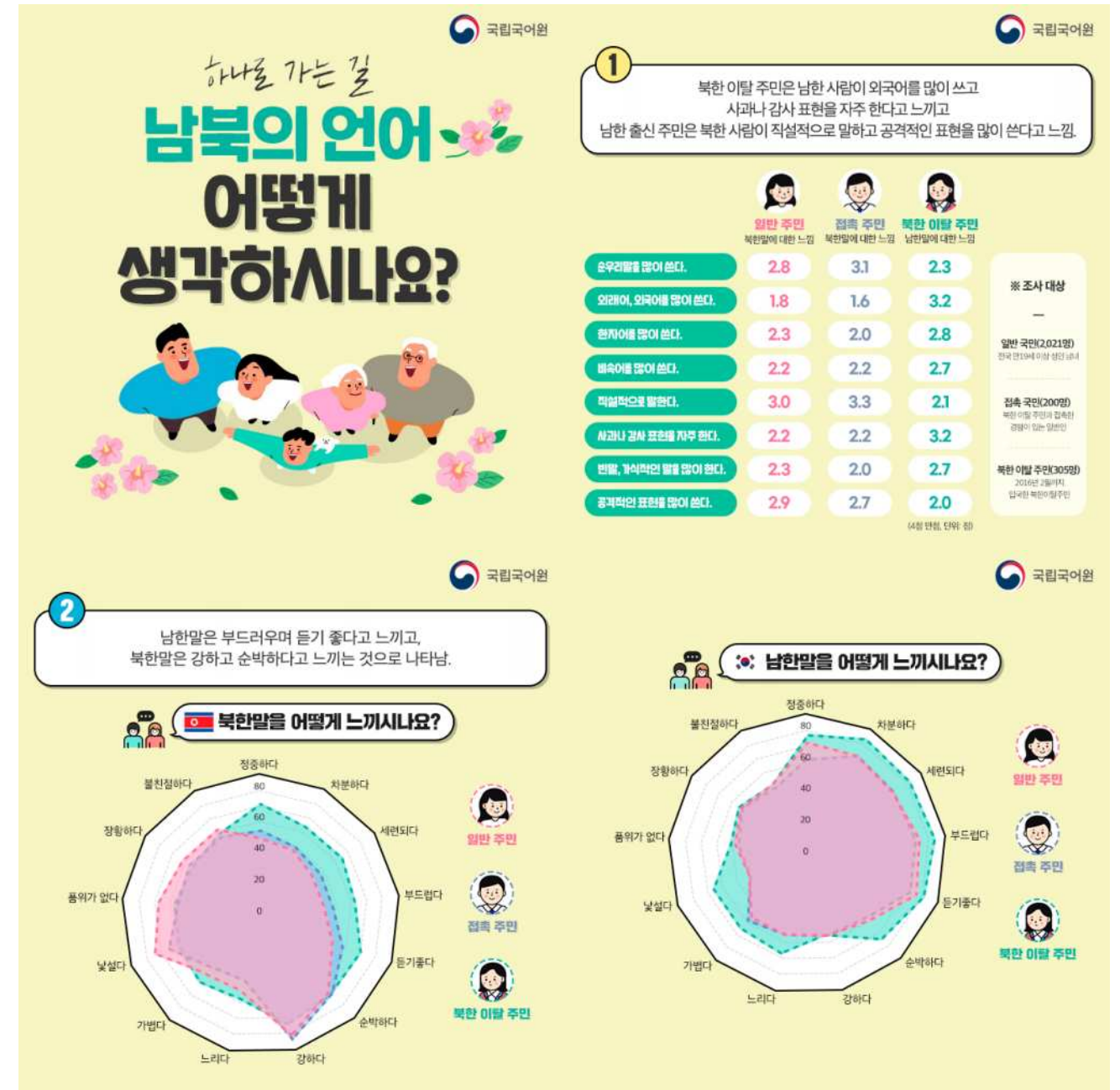
박양우 장관은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한국어교육 관련 학자들과 언어 공학, 언어 산업, 글꼴·한글디자 인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이 대회가 해를 거듭 하며 출판, 번역 등 관련 분야로 외연을 넓혀 신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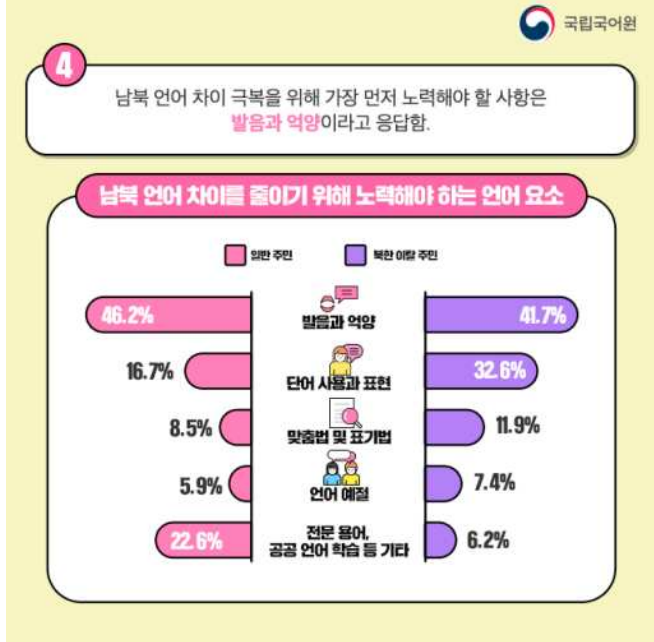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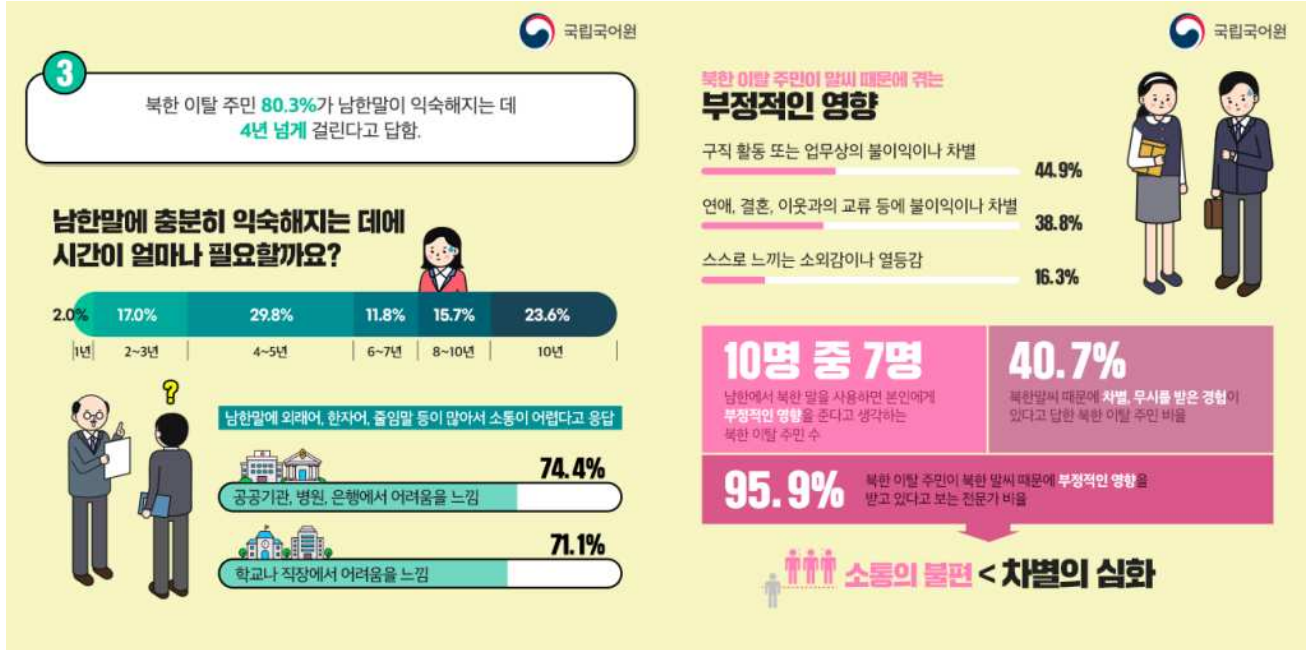
하나로 가는 길 남북의 언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로 가는 길 남북의 언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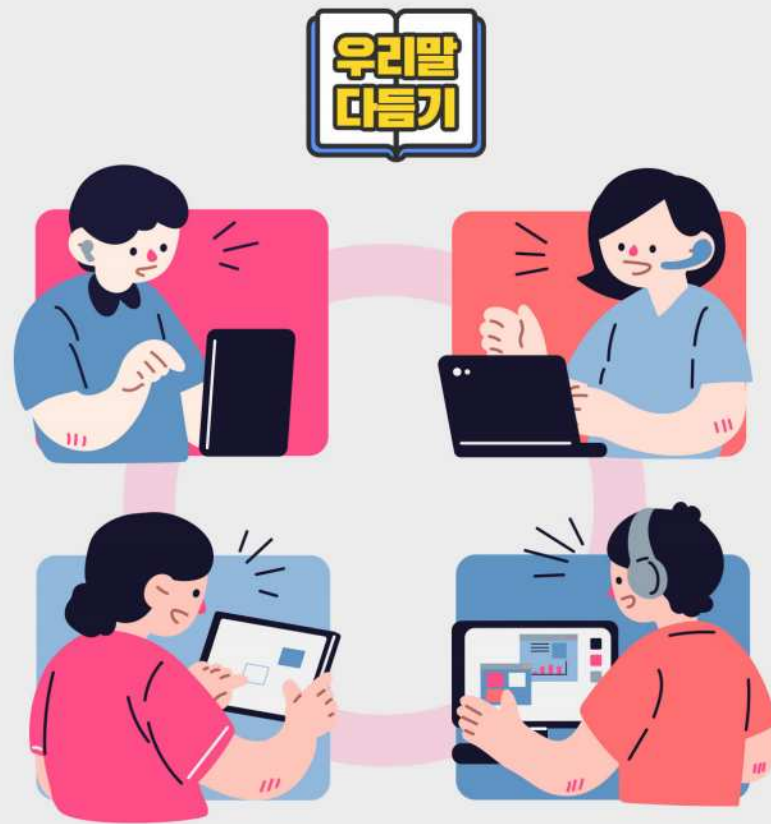


5천 년을 함께 살았지만, 70년을 떨어져 살아온 한민족. 우리의 언어는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 국민은 남북 언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어떤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통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



비대면 서비스

은행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서비스**로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봅니다.

비대면 채용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는 **비대면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해요.

비대면 공연 관람

공연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즐기는 **비대면 공연 관람**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언택트 서비스를
다들 우리말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 가지 않고 집 안에서 장을 보거나

비대면 소비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 일상에서도 서로 대면대면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요!

비대면 소통

새천년 시대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을 포기할 순 없어요!

기성세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새천년세대**는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새천년 시대-개념-소비 #환경 #윤리

새천년세대는 소비할 때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천년 시대

인터넷에 익숙한 **새천년세대**는 직접 만나는 것보다 누리 소통망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고 해요.

#밀레니얼-세대-대체어-새천년-세대 #소셜네트워크-대체어-누리-소통망

새천년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를 다듬은 우리말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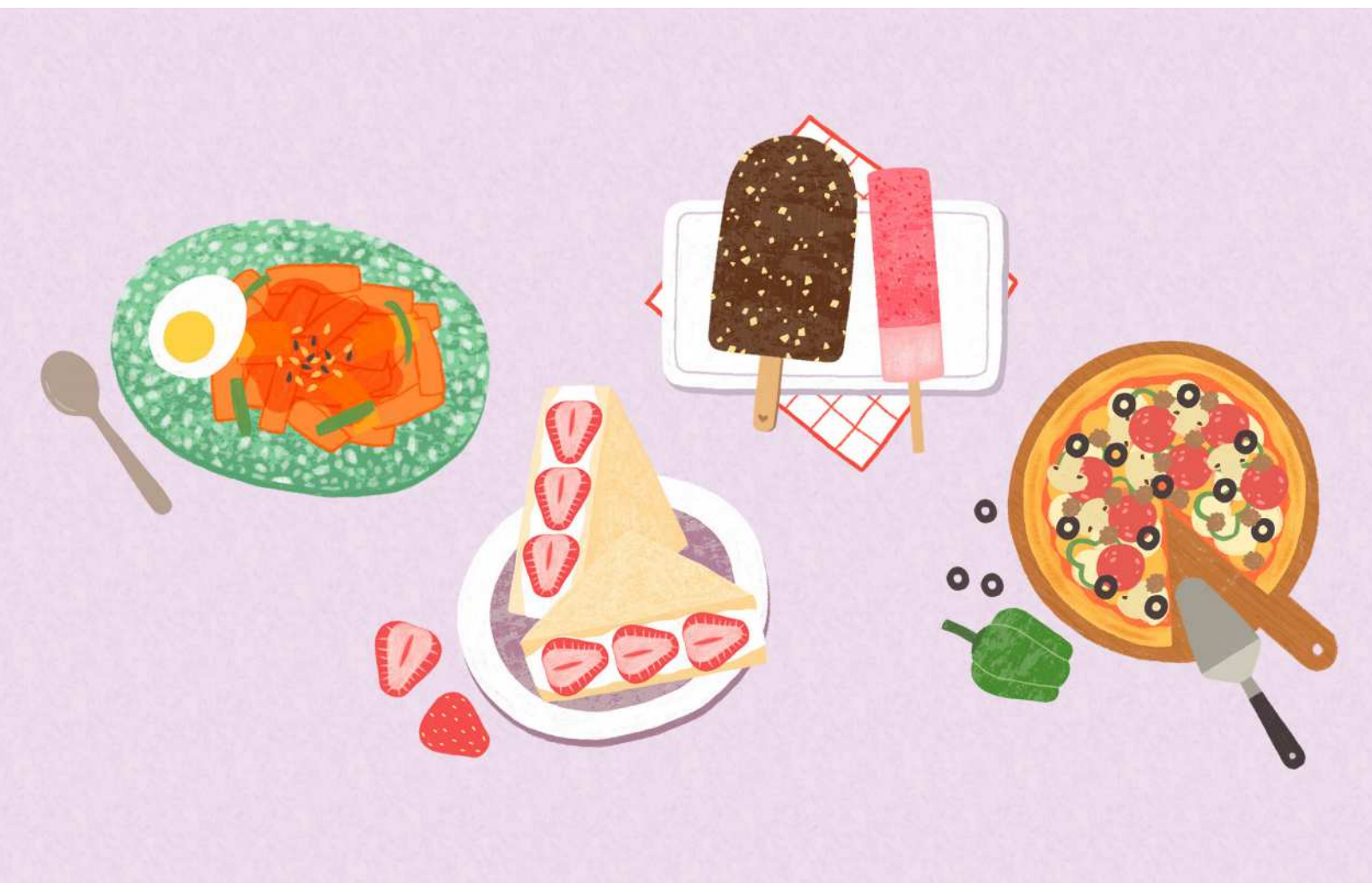
새천년 시대

누가 뭐래도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새천년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변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즐겨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새천년세대**를 응원해요! 아울러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겠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휘 사용과 유행의 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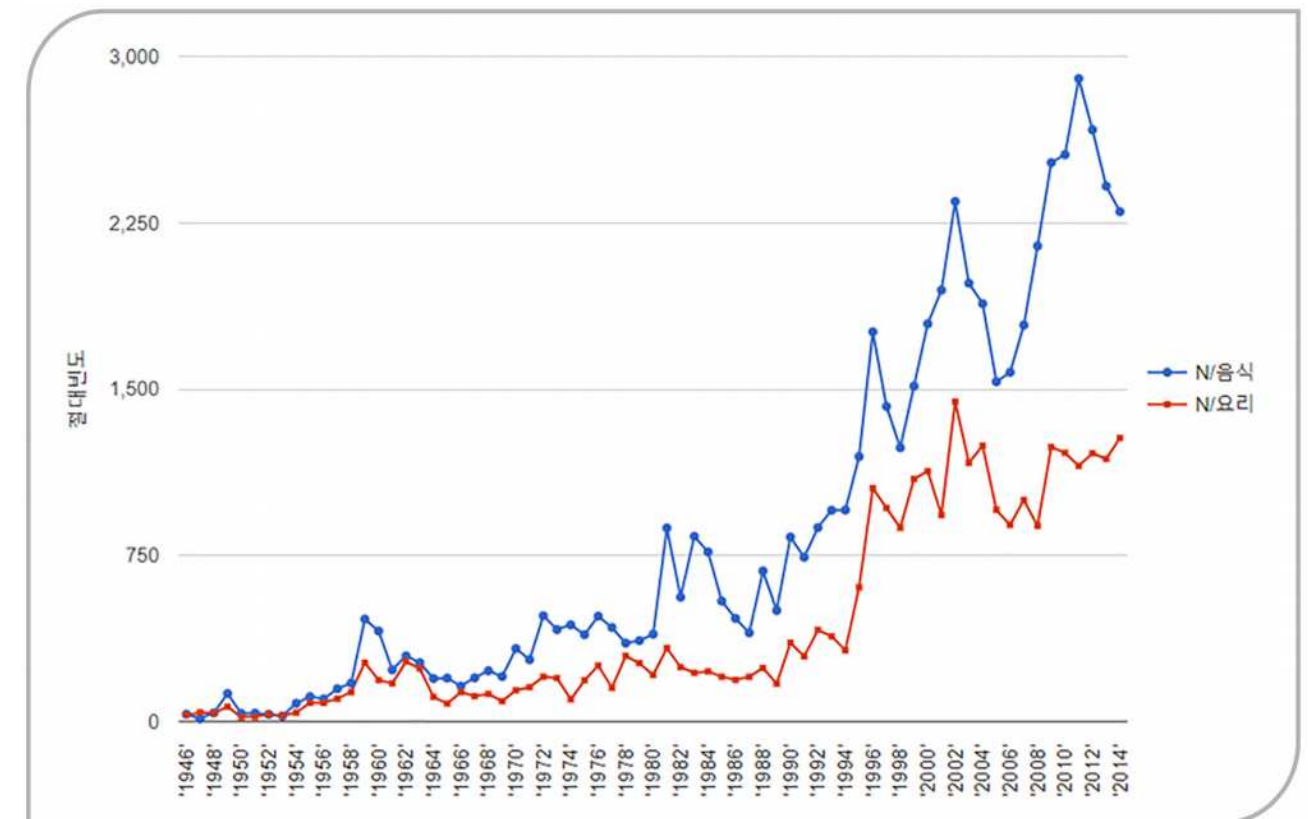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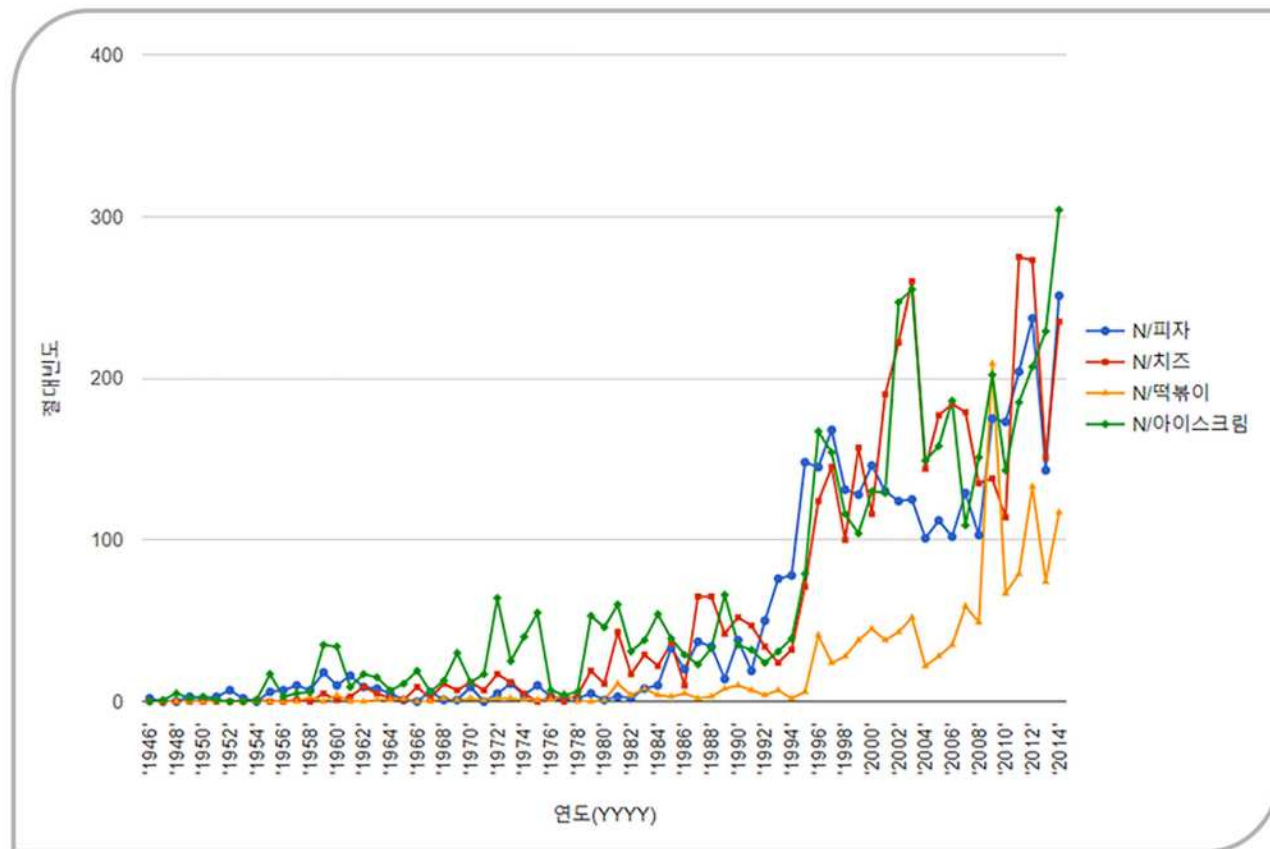
단어의 사용도 시간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 없던 단어가 새로 출현하기도 하고, 있던 단어라도 사용 빈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때 새로 생긴 단어들은 신어 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용 빈도가 달라진 단어들은 대규모의 통시적인 데이터 분석이 없이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번에는 대규모의 통시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 동아일보 70년(1946~2014)을 통해 단어 사용 빈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단어 사용의 유행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특히 사용 빈도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는 단어들을 추려 보고 이를 통해 유행 변화의 일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 사용이 크게 증가한 단어 중 하나가 ‘음식’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음식’, ‘요리’에 대한 빈도 변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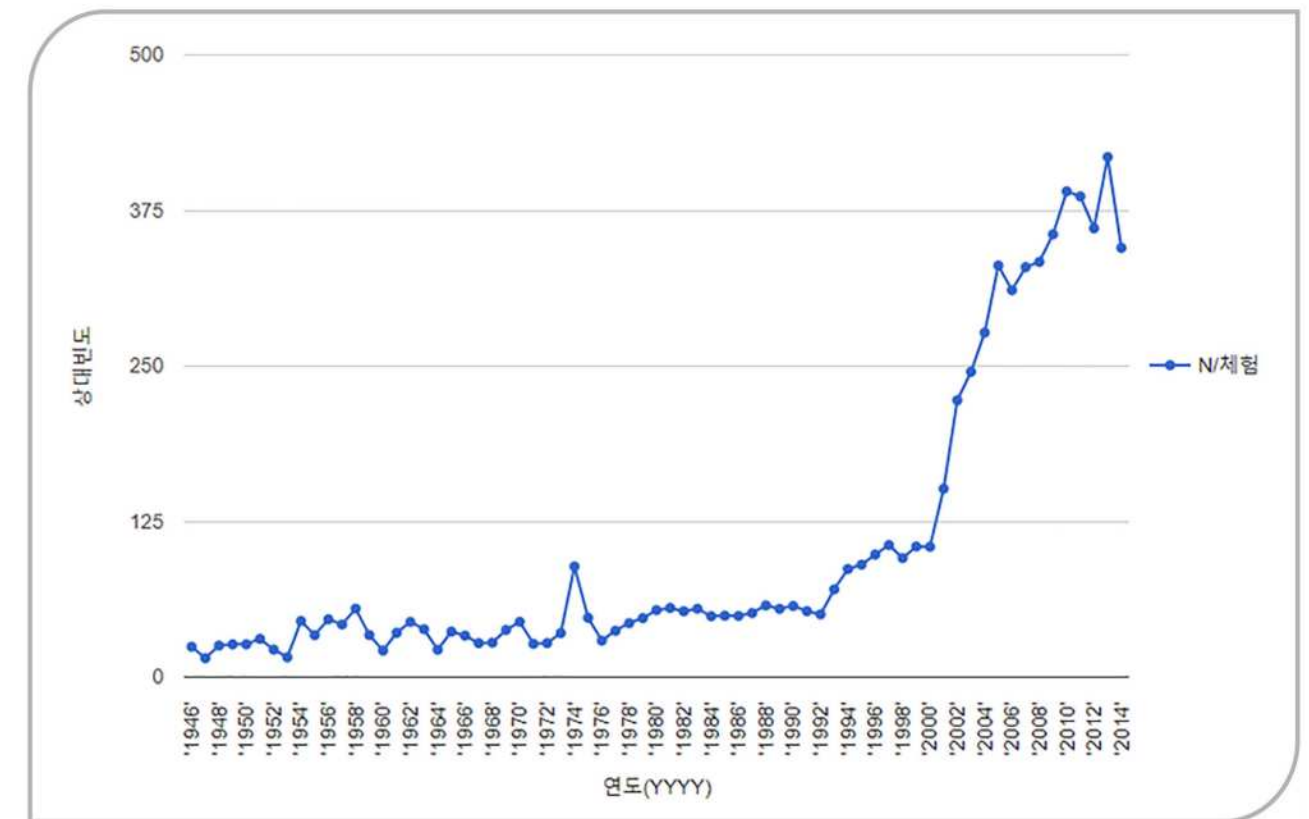


‘음식’과 ‘요리’는 비교적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인데, 특히 ‘음식’의 빈도 추이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음식 관련 하위어의 빈도 추이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피자, 치즈, 아이스크림, 떡볶이’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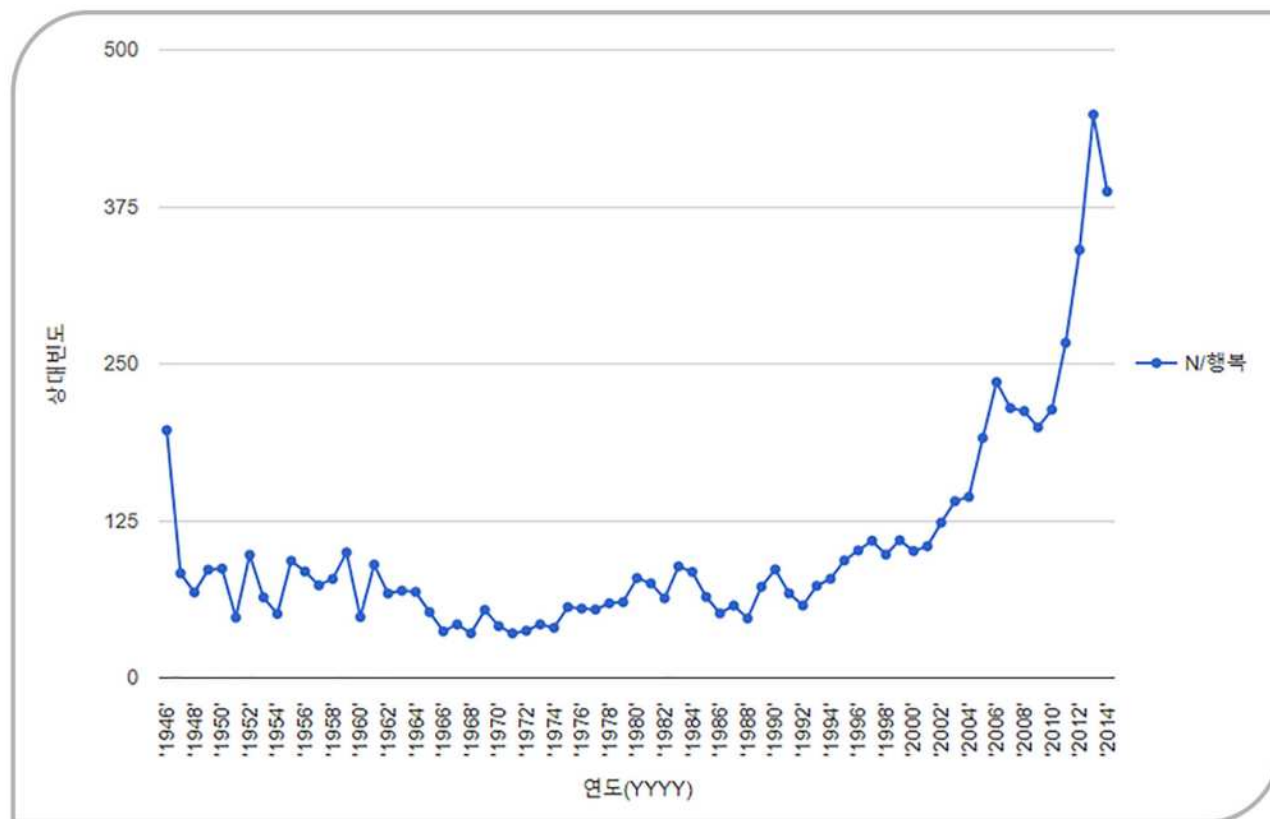
음식 관련 단어들 외에 눈에 띄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단어로 ‘체험’을 빼놓을 수 없다.



‘체험’은 상대 빈도로 계산하더라도 194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약 14배 이상 증가했다(상대 빈도는 출현 빈도를 100만 단어당 출현 빈도로 상대화한 것). ‘체험’과 관련된 ‘여행, 투어, 아웃도어, 캠핑’ 등의 단어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체험’이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주요 유행임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 음식이나 체험과 관련한 유행이 부상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행 변화에는 여러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얹혀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그림으로부터 일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행복’의 빈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 준다고 해석된다. ‘음식’과 ‘체험’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현대 사회의 한국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느끼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0년대 동아일보 말뭉치는 행복 관련 유행을 어휘의 사용 빈도라는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를 통해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행복처럼 새롭게 부각된 유행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진 유행도 있다.

그러면 소위 한물간 유행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른들을 위한 동시집을 출간한
풀꽃 시인 나태주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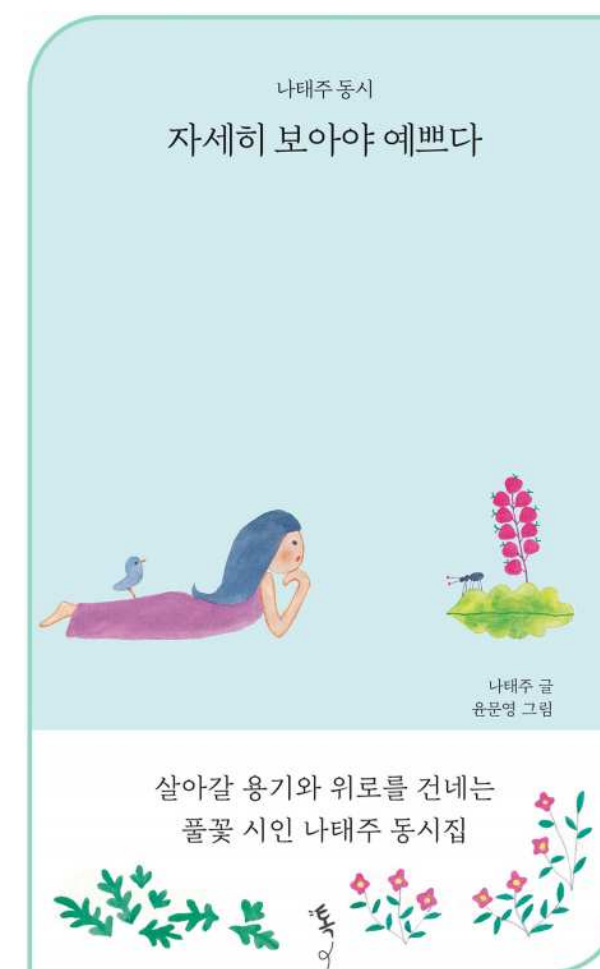
나태주 시인은 사는 일이 짜증스러울 때, 동시를 읽으라고 말한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다정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다. 시인은 동시가 결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 어른들도 모두 어린이였기 때문이란다. 시 쓰기 60년을 기념하며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말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생각을 주고 싶었다며 어른들을 위한 동시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를 내놓은 시인, 나태주를 만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더없이 화창한 어느 봄날, 시인 나태주를 종로에 있는 시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올해 초 시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나태주는 자택이 있는 공주와 서울을 오가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48년 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한 지도 한참지났지만, 어찌된 게 지금이 더 바쁘단다. 더욱이 동시집 출간까지 했으니 왕성한 현역의 삶 그 자체다.

나태주는 이번 동시집에 그간 써 온 시들 중에 어른을 위한 시들을 직접 고르고, 정년퇴임을 한 후 교실 밖에서 써 내려간 신작 동시들도 더했다. 나태주는 책 서문에 사는 일이 늘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불행할 때가 있기에 “그래서 동시를 드립니다.”라고 책을 편 이유를 밝혔다. ‘동시를 드린다’는 표현이 인상 깊다. 왜, 지금, 시인은 동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본래 서문을 잘 써야 책이 잘 나갑니다. (웃음) 서문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길 쓰죠. 서문은 독자에게 내미는 저자의 손과 같아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 동시를 ‘드린다’고 썼어요. 어른인 제가 드린다고 높여 말하니 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죠? 이 시집의 서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건네는 말입니다. 동시 하면 아이들의 시로만 알아요. 아이들의 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반드시 어린이만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고요? 어른들도 모두 어린이였기 때문이에요.”

나태주는 어른의 삶이 찌꺼하고 힘든 건 어린 시절의 꿈을 잃어버린 탓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의 천국을 떠나와서 그래요. 어린 시절은 다 천국이었고, 그때 만났던 사람은 다 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떠나 딴 데 와 있는 거예요. 어른 세상이에요. 동시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천국과 천사를 소환해 줘요. 동시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 좋았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오늘이, 지금이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가 절로 써지는 나이

이번 동시집에 실린 <교회식당>이란 시를 보면 앞니 빠진 일곱 살 남자아이가 시인에게 반말로 대거리를 하는데, 시인은 자신이 아이들한테까지 깔보이는 사람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원지 모를 웃음이 새어 나오며 부쩍 시인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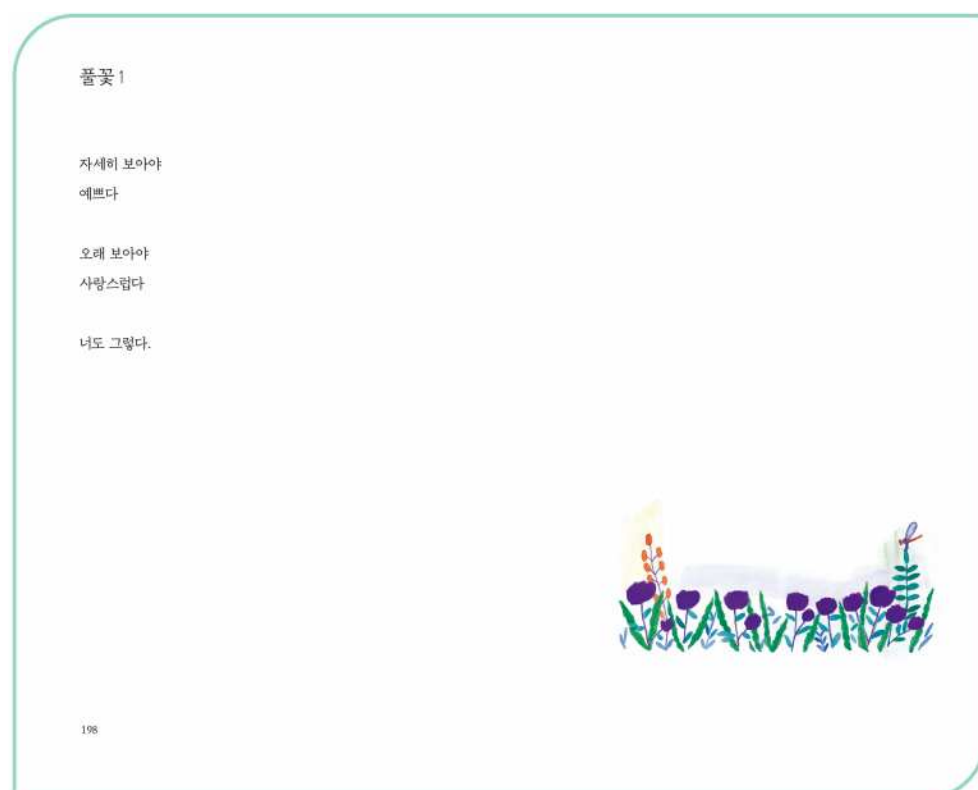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은 보통 어른들을 근엄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빠진 한 아이가 다가와서 자기가 먹기도 국수가 맛있었는지, 나를 보고 ‘할아버지 그 국수 맛있었어?’ 하고 반말지거리로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말이죠. (웃음) 그래서 ‘야, 인마!’ 안 하고, ‘응, 맛있었는데?’ 하니까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걸 그 자리서 바로 썼죠.”

나태주는 나이가 드니 굳이 동시를 쓴다고 의식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시를 써도 절로 동시가 되는 것 같아 참 좋다고 말한다.

“일흔이 넘으니까. 아이들이 읽어도 좋고, 어른이 읽어도 좋은 시가 쓰이더라고요. 억지로 동시를 쓰지 않아도 동시가 돼요. 그게 참 좋아요. 젊은 시절에는 동시를 써야겠다 마음을 먹고 썼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책을 낼 때도, 출판사에서 그러더군요. 나태주의 시 안에는 동심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다 좋다고.”

풀꽃 시인의 60년 시 쓰기

시인 나태주를 일컬어 어른들은 풀꽃 시인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열여섯 살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해 60년이 흘렀고,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50년, 또 교직 생활로 48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태주는 더욱 깊이 어려졌으며, 더욱 투명하게 순수해졌다. 현대인의 마음속 한 줄이 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동안 아이들로부터 선물받은 문장이었음을 시인은 60년을 회상하며 고백한다.



나태주의 시 <풀꽃>은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외벽을 장식해 온 많은 ‘광화문 글판’들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시구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시가 걸린 현판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내 줬어요. 그렇게는 봤죠. 얼떨떨했죠. (웃음) 제 시는 광화문 글판에 딱 한 번 올라가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시다. 나는 그 시가 그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어요. 그 시를 쓰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독자들이 그 시를 알아봐 주고 칭찬해 주고, 활용하니깐, 저절로 모두의 시구가 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시인의 대표작은 시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결정한다는 걸요.”

오로지 시이다. 시란 내일 할 일이거나 이따가 할 일이 아닌 지금 바로 할 일이다. 숨 쉬는 일이고, 밥을 먹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다. 나태주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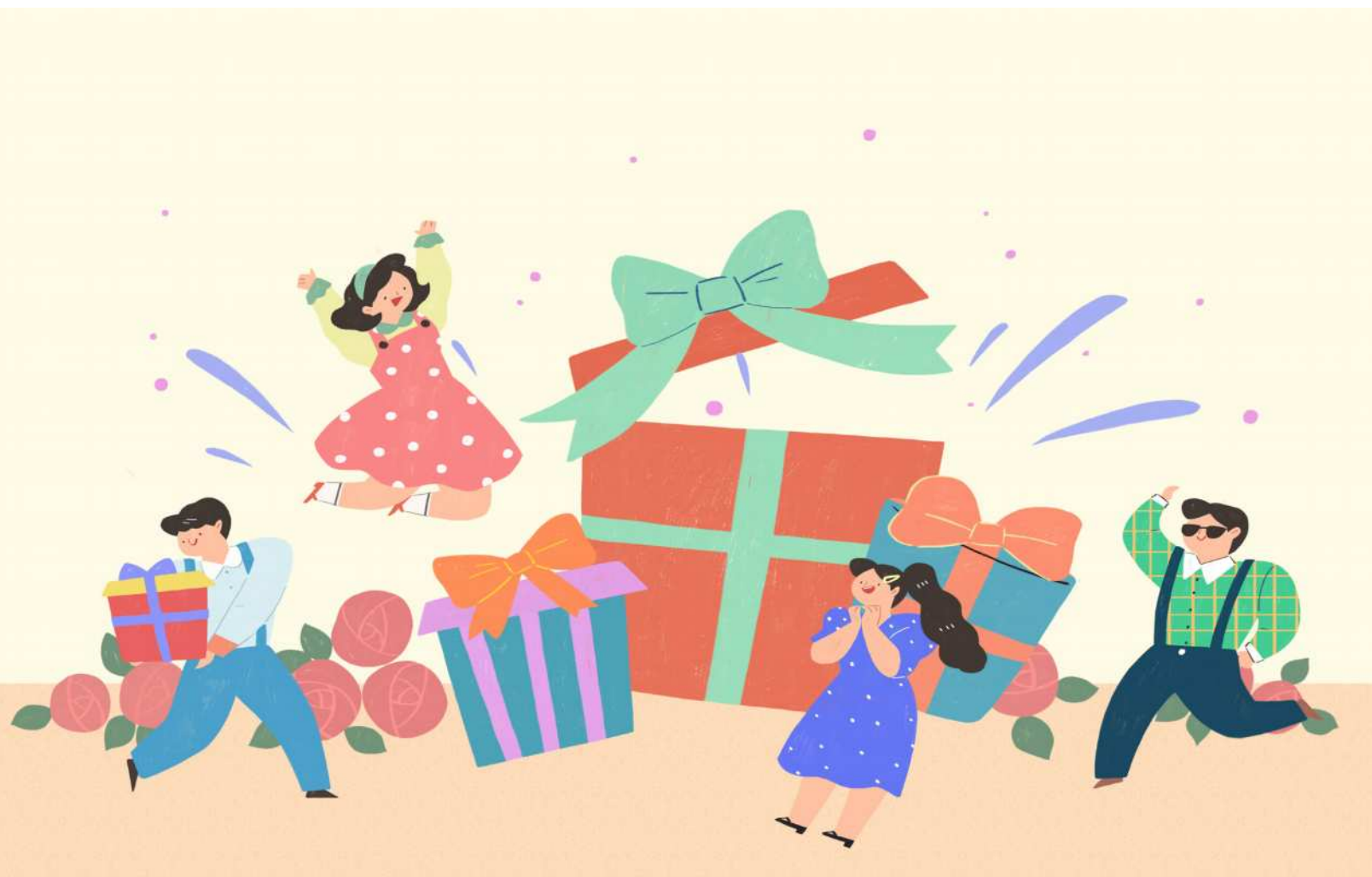
“괴테가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겐 철학이 되고, 노인엔 인생이 되는 시’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게 내겐 <풀꽃>이에요. 독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태주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에 대한 염려도 잊지 않았다. 조금 더 작은 생활, 조금 더 내면적인 일상, 조금 더 자기를 성찰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어쩔 수 없는 요구를 받는 것 같으면서 말이다.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이 동시집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고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준다면, 딱딱한 삶에 부드러운 삶을 선물해 준다면...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일의 꿈을 꾸는 데 디딤돌이 되어 준다면 좋겠어요. 그래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야 뭐, 책 많이 팔리면 좋지, 뭐. (웃음)”

시가 절실한 때이다. 시인의 바람대로 많은 이들이 그의 시를 읽고 위안과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우리말 풀기



여름의 문턱에서 전해 드리는 6월 2주 차 <쉽표, 마침표>, 잘 보셨나요?
매번 잊지 않고 <쉽표, 마침표>를 보러 와 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더위를 달래 줄 시원한 음료 선물을 준비했으니, '우리말 풀기'에도 꼭 참여해 보세요!

문제 1

단어의 형태를 가리켜 '어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처럼 어간에 어미가 붙어 이루어진 어형을 이라고 한다.
용언은 이 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살려 쓴다는 뜻의 활용이라는 말을 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나라의 방역이 세계 모범이 될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저력은 정말 대단해요.
'' 띄어쓰기는 '말'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들만 기억해 두면 쉬워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한-중 학습사전》은 다양한 어휘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역시 한국어와 중국어로 살펴볼 수 있다.
초·중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는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국어 뜻풀이가 함께 제공되는 ''이 한국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 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 가지 않고 집 안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봅니다.
는 언택트 서비스를 다듬은 우리말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북한에 ‘꾹돈’이 있다면 남한에는 ‘□□□’가 있다.
본래 ‘급행열차에 부가하는 일반 요금 외의 부가 요금’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문제 6

‘체험’은 □□□□로 계산하더라도 194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약 14배 이상 증가했다.
‘체험’과 관련된 ‘여행, 투어, 아웃도어, 캠핑’ 등의 단어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체험’이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주요 유행임을 보여 준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6. 9.~2020. 6. 22.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7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민*미(5512) 정*윤(0919) 이*순(5050) 김*정(1541) 이*훈(3867)
김*배(5102) 박*현(3178) 최*태(9603) 백*정(1814) 정*규(5236)

우리말 풀기



이번 호에 만난 나태주 시인은 “코로나 19 시대에는 조금 더 작은 생활을 하며 자신을 성찰하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새 일상, 새 기준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 보면 어떨까요?
고운 시 한 편을 읽으며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겠지요?

문제 1

이 활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간과어미가 함께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부하다, 절하다, 건강하다’와 같이 ‘-하다’로 끝나는 용언은 ‘여 불규칙’
활용도 하고 ‘□□□□’ 활용도 하는 말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하나 ‘□□’ 없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 없는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뜻 ‘□□’ 찾아온 작은 경험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해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인터넷에 익숙한 ‘□□□□□□’는 누리 소통망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고 해요. ‘□□□□□□’는 ‘밀레니얼 세대’를
다듬은 우리말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뜻합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그 시간 동안 나태주는 더욱 깊이 어려졌으며, 더욱 투명하게 순수해졌다.
 현대인의 마음속 한 줄이 된 ‘□□□□□□□□’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동안 아이들로부터
 선물받은 문장이었음을 시인은 60년을 회상하며 고백한다.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6. 23.~2020. 7. 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7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민*미(5512) 정*윤(0919) 이*순(5050) 김*정(1541) 이*훈(3867)
 김*배(5102) 박*현(3178) 최*태(9603) 백*정(1814) 정*규(5236)